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2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5일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동네서도 문화·예술 쉽게 접하고 체험해야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나

〈13〉 문화공간 확충 시급

문화자본 격차는 삶의 질 격차
문화 불평등이 지방소멸의 요인
지역민들 선호와 취향 고려해
매력적인 공간 마련에 나서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원하는 다채롭고 매력적인 문화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을 찾은 시민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들이 동네마다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의 인구문제 해소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애호가들의 하나같은 답변이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 최근 문화예술인들과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드러났다. 지원포럼은 800여 명의 참여자 중 703명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들었다. 분석 결과 '전시 및 공연 활성화'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작은 문화공간 조성'(23%), '체험형 문화 이벤트 확대'(12%), '홍보 활성화'(9%)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환경변화와 인식의 대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특히 문화자본의 격차는 삶의 질 격차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문화를 균등히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토연구원·한국리서치(2021년)가 발표한 '지역불평등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인프라와 관련 문화·여가 시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45.2%)고 집계됐다. 그만큼 문화시설의 확충은 지역 활력은 물론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꼽힌다.

아울러 지원포럼 설문 결과는 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특정 목표를 넘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그동안 광주는 정상급 뮤지컬, 오페라 등 대형 전문공연을 진행할 예술 공간이 없어 '문화도시'라는 수사가 무색했다. 다행히 광주시는 최근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 절차, 기본계획 용역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적화된 '무대' 건립에 나서는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콘텐츠나 비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책을 빌릴 수 있는 문화시설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 도서관이다. 광주는 국공립도서관(2021년)이 24곳으로 전국 평균 69곳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화된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인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을 찾지 못하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일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주에는 지난 2017년부터 광산구 신창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총 24곳(동구 2곳, 서구 5곳, 남구 6곳, 북구 2곳, 광산구 9곳)이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비 25억원을 들여 전국 37개 시·군·구에 U-도서관 45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동구와 서구, 북구에 각각 1곳이 추가로, 전남에는 기존에 설치됐던 나주와 영암에 추가로 3곳이 생긴다. 이밖에 고흥, 화순, 장흥에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찾아가는 영화관·문화공연'은 농어촌 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장흥을 시작으로 2016년 고흥, 2017년 진도·완도·곡성이 문을 열었다. 이어 보성(2019년), 영광·해남·담양(2021년), 영암(2022년) 개관했으며 신안을 비롯해 강진, 무안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섬이나 외진 시골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펼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공연'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상 속 15분 문화생활권 조성'이 한 사례인데 지역 서점, 갤러리, 카페 등 근거리 민간시설을 활용해 누구나 동네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선호와 취향 등을 고려한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면 자칫 생색내기 또는 전시용에 그칠 우려가 있다. 문화 공간이 문화 향유의 토대가 되는 만큼 문화와 예술, 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치권, 중앙정부가 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매력적인 문화시설, 문화공간 확충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며 "문화향유와 직결된 문화 자본이 다른 사회적 자본 못지않게 지방 소멸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 시작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12일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지역 민영방송인 TV-U 후쿠시마가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약 2주간의 시운전 기간에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바닷물과 섞어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면서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도쿄전력은 앞서 지난 4월 25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약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으며, 이어 이달 들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약 6000t의 바닷물을 주입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볼 수 있는 어민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상당하다.

후쿠시마현과 접해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요시히로 지사는 "처리수 방출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지역 민방인 도호쿠방송(TBC)은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 공공와이파이 최대 4배 빨라졌다

관제센터 개소…품질 개선

광주지역 공공 와이파이가 최대 4배 빨라졌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부터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에 들어가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건소, 복지센터, 터미널, 관광지 등 1899대를 설치했다. 시는 시내버스에도 1044대나 설치했으며, 전국 최초로 모든 시내버스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가운데 750대는 기존 2.4GHz 공유기(AP)를 2.4GHz와 5GHz 대역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교체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관제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120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총 3063대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 5월 기준 광주시 공공 와이파이 총 데이터 사용량은 434TB(테라바이트), 총접속 건수는 6927만 2441건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지역 공공 와이파이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 건수, 트래픽 양 등을 확인·분석하고 장애도 실시간 처리할 '공공 와이파이 관제센터' 개소식도 열었다. 이번 관제센터 개소로 끊김 현상 등 민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불갑산이냐 모악산이냐 명칭 갈등 ▶7면

굿모닝 예향-新 전남관광여지도 ▶18·19면

U-20 월드컵 '골짜기'에서 건져 올린 4강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